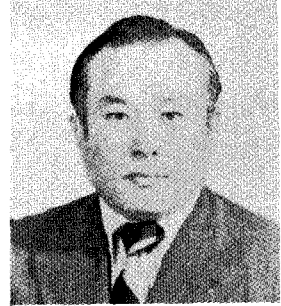


양계산업의 안정과 고도의 성장발전을 촉구한다

오 세 정

건국대학교수, 양계협회장 역임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월간 양계 창간 14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회고하던대 창간 당시에는 업계의 빈약과 이해 및 협조가 적은 가운데에서도 창간호 발행인 오 봉국박사님의 선각적인 굳은 의지와 정성어린 봉사정신에 의거, 협회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분의 특별찬조와 유관기관의 광고찬조로 재원을 조달하는 노력끝에 창간된지 14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속간되어, 이제는 내용면에서나 체재 및 운영면에서 일진월보 발전되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월간양계지가 되었다.

이와같이 발전한 배경에는 업계의 발전과 협력도, 크려니와 편집을 담당한 협회 실무자의 창조적인 피눈물나는 봉사의 노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 노고를 치하한다.

특히 발간비의 재원이 협회의 기능 활성화와 운영상 전율이 불가피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2~3개월씩 외상인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한 원고수집이 기일내에 되지 않아 애타게 동분서주하는 실무자들의 고초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로를 치하하고 싶다.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뿐 아니라 정보의 신속전달, 업계의 선도적인 언론의 기관지로서가

일층 찬란한 빛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식생활이 식물성 위주에서 동물성식품(축산물)으로 전환될 날이 머지 않으며 하루속히 닭고기와 계란을 위주한 식관습이 되도록 우리의 경제부흥, 아니 양계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계협회의 기능강화와 활성화가 촉구되며, 아울러 업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본다.

이와같은 과제를 조속히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월간양계지가 단순한 기술과 정보소식의 전달매개지 뿐만 아니라 화합에 의한 참여율 제고와 단합된 힘으로 자생, 자존, 자립으로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편집자들이 관심과 사명을 가지고 협회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같으면 일조일석에 변화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으나, 전체양계인이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의 실천을 하기는 문제점이 많아서 조화와 이해로서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양계업계의 안정과 고도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다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 이루지 못

하고 개선 실천치 못하고 있는 점을 지면을 빌어 다시 제기하니 하루 속히 실천되길 바란다.

1. 양계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양계산업은 고기와 계란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타가축 보다 고단백식품이며 또한 사료효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축정차원에서 양계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한 시책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종계의 개량, 시설개선, 위생대책, 기술개발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수급의 안정과 적정가격의 유지를 위한 기금조성, 가공 저장시설의 확장 등 종합적인 시책의 지원과 규제강화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더욱 발전될 수 있다. 2천년대 주식이 될 닭고기와 계란의 수급을 위해 법적인 지원보장과 규제가 하루속히 실천되기를 바란다.

2. 양계산업안정기금을 조정해야 한다.

양계산물의 수급조절로 가격의 적정화를 기하고 가공, 이용,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예산으로는 어려우며 소비하는 사료, 병아리, 계란, 계육의 유통과정에서 부담 염출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택하여 기금을 조성, 우리의 산업을 스스로 보호하고 발전시켜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감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당국에서는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역사의 창의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업계는 적극 협력과 추구와 정진을 할 때라고 본다.

3. 양계인 조직 활성화로 경영개선을 꾀해야 한다.

지역별로 채란업자 또는 육계업자가 합심협력하여 조직단체를 구성하여 병아리, 사료, 약품 등 모든 자재를 공동구입함으로써 품질과 가격면에서 유리하고 공동출하로 경쟁없이 권익

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동방역, 기술의 공동도입, 자금의 효율화, 공제제도에 의한 상부상조 하는 협동정신의 양양을 위해 지역별로 조합이 조직되어야 한다.

조합이 안되는 이유는 봉사정신의 결여와 불신풍조 때문인데, 사리와 이기주의, 안일감 때문에 협력과 조직운영이 안되는 이유도 크다.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영세한 업자, 기술과 경영이 미흡한 자는 머지 않아 폐업되고 기업양계로 발전되며, 재벌이 아니면 양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양축가는 생업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고도의 기술과 경영의 개선은 물론 협력에 의한 단체조직강화와 공동경영이 시급한 지표이며 생존의 길이다. 이기심에 의한 안일한 태도는 악순환에 의한 자멸을 초래하며 권익을 포기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생산성 제고에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생산능력이 향상이나 생산원가의 절감, 생산물의 판매에 있어 안일과 타성, 인습에 젖어 있는 현실속에 보다 창의적인 연구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보다 수익성을 높힐 수 있다고 본다.

산란율을 1%라도 증가시키도록 하며, 사료효율의 향상으로 경제성이 높게 개선되어야 하며, 생산원가를 단 1원이라도 절감시켜 인건비, 위생비, 기타관리비의 절감을 기해야 하며, 생산물도 손실, 감모없이 출하해 수익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사업을 자신이 책임지며 자성과 자탄, 자립, 자존, 자영하는 것이니, 양계인은 모두 시야를 넓히고 대봉의 뜻을 품어 합심 단결해 힘찬 전진과 발전이 있기를 축원하며, 월간양계와 더불어 양계산업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한양계협회 발행 시세속보

구독문의 ☎ (752) 3571 ~ 2